



자원봉사·서포터즈 헌신 ‘광주’ 빛냈다

U대회 성공 개최 숨은 주역들

친절·배려 통해 외교사절 역할

86세 어르신까지 모두가 동참

차량 2부제 등 시민 협조도 한몫

자원봉사자들과 각국 서포터스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더욱 광주 U대회를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회 기간 중도 포기자들 없이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친절과 배려’를 통해 외교 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또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대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광주 시민들의 참여와 질서의식도 두드러졌다.

이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뛰어난 애향심과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한 헌신성이 이

번 U대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으며, 나아가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역량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9314명이었다. 통·번역에 3464명, 경기 1424명, 기술 101명, 행정 876명, 서비스 1675명, 의무 537명, 안전통제 177명, 개·폐막 291명, 도심 642명, 기타 127명 등이다. 대회 기간 중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86세 어르신에서부터 13세의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 학업 중에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유학생 등 이들의 열정과 참여, 헌신은 이번 대회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이들은 대회기간 중 현장 곳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장 등 주요 시설에서 행사 진행과 수송업무, 통역 등을 맡아 대회 성공개최를 돕는 등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진행을 현장에서 지원했다면, 서포터즈는 광주의 정(情)과 인심을 전하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냈다. 이들은 광주송정역 등지에서 광주에 도착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함으로써 광주에 처음 들어오는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각 경기장에서는 국가별 응원단 역할을 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편안하게 경기에 몰입토록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자율적으로 시행한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대회 기간 광주 시내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됐고, 특히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의 교통통제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면서도 기꺼이 이를 감내하며 협조했다.

외국 선수들을 친절하고 반갑게 맞았으며 주변 청소와 경관개선 등에도 솔선수범하는 등 이번 대회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중심의 대회였다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외국 선수들은 광주를 ‘친절’ ‘우호’ ‘쾌적’ ‘조화’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한껏 애정을 표시했다. 이같은 표현은 모두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친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



대만 선수들 차기 개최지 홍보

14일 오후 광주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폐회식에 앞선 대만 선수들이 차기 개최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다. <광주 U대회 조직위 제공>

재수 끝 유치…6년간 완벽한 준비 ‘한마음 대회’로

U대회 유치에서 성공까지

광주가 ‘재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광주시의 U대회 도전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고, 성공 개최까지는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시는 2008년 2월 FISU 사무국에 2013 U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위원회와 광주시민들은 본격적인 유치운동을 시작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총회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2008년 5월31일 FISU 집행위원들은 끝내 러시아 카잔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광주시는 다시 도전에 나섰다. 2015

년 하계U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145일 앞두고 2008년 12월 유치위원회를 다시 꾸렸다.

유치위원회는 한 번의 실패를 맛봤기에 각오와 준비가 남달랐다.

무엇보다 유치전략을 강화했다. 투표권을 가진 FISU 집행위원들은 철저한 1대1 마크를 통해 논리적인 설득을 이어갔다. 유치위원들은 지구를 8바퀴 반을 돌 정도로 ‘발품’을 팔았다. 그리고 다시 맞은 결전의 날 2009년 5월23일, 조지킬리언 FISU 집행위원장은 담담하게 ‘2015 광주’를 외쳤다. 광주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열정이 결국 최초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

유치 성공 이후 U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근거해 2010년 1월

조직위원회가 창립,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또 같은해 2월엔 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창립돼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민이 나섰다.

이어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2014년 한해 동안 U대회 경기가 열리는 기간 숙소와 선수촌, 경기장 등 현장에서 땀 자원봉사자 12만명을 모집하면서 차근차근하게 대회 준비를 해나갔다.

준비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소원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끄는 등 U대회를 한달여 앞두고 국회 차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한 ‘국회 광주U대회 지원단’도 출범하면서 대회 개최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7월3일 광주에서는 첫 국제스포츠대회가 막을 올렸다. 특히 U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143개국 1만 288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 흥행을 이끌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성공 대회로 막을 내렸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



윤장현 시장



강운태 전 시장



박광태 전 시장

박광태 ‘유치’ 강운태 ‘준비’ 윤장현 ‘고품격 대회’ 마무리

U대회 ‘수훈 갑’ 역대시장들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U대회는 3대에 걸친 광주시장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광주 U대회는 박광태 시장 시절 유지됐고, 강운태 시장 때 본격 준비됐으며 윤장현 현 시장 체제에서 치러졌다.

대회 진행은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맡았다. 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문화도시 광주에 맞는 고품격 대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단순한 체육대회를 뛰어넘어 민주·인권·평화 그리고 문화의 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축제의 난장’으로 대회 컨셉을 전면 수정하고, 개·폐회식 등 모든 프로그램도 재조정했다.

청년축제 등 도심 곳곳에 30여개의 축제를 배치했으며, 광주·전남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팸 투어 등도 마련했다. 윤 시장은 매주 화요일을 U대회의 날로 정하고 U대회 조직위로 출근, 간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도 직접 챙겼다.

하지만 대회를 한달여 앞두고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로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고, 얹힌 데 얹친 격으로 최고의 흥행 카드인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도 불참을 통보

했다.

윤 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강력한 메르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일선에서 메르스 자단에 전 행 정력을 집중한 끝에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켜냈다.

메르스로 참가 여부를 고민하던 대만, 홍콩 등도 ‘메르스 청정 도시’를 유지한 광주시의 선진 방역 시스템을 믿고 U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이어 전 세계 143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광주 U대회 선수촌에 입촌했다.

윤 시장은 “진정성을 갖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평가를 얻어 다행”이라면서 “U대회를 통해 얻은 에너지를 광주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낸 박광태 전 시장은 광주 U대회를 유지한 주역이다.

박 전시장은 ‘2013년 U대회’ 유치 경쟁에서 러시아 카잔에 밀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2015년 대회를 유지하는 독심을 발휘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은 국제대회의 난제 중 하나인 선수촌 문제를 재건축으로 해결하는 등 저비용 대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전직 시장은 민선 6기들어 U대회 서포터즈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돼 후반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저비용·고효율 대회’ 만든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

실전사령관 맡아 비용 절감·국비 확보 이끌어

광주 U대회 성공 주역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김윤석(62)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다.

김 총장은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만든 일등공신이다.

그는 특히 공직생활 동안 예산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대회 예산 절감에 적극 활용했다.

목포가 고향인 김 총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대(행정학과)를 나와 7급 공무원 시험으로 공직에 입문했다고 한다.

그는 1980년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원)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전문가



로 명성을 쌓았으며, 2007년부터는 광주시 정부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U대회 유치에 성공하자 2010년 3월 부시장에서 물러나 조직위 사무총장(차관급)을 맡는 등 대회 유치부터 성공 개최까지 실전 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예산전문가’의 특성을 십분 발휘해 비용절감 방안을 찾고, 탄탄한 인맥을 통해 국비지원 루트를 뚫어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오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의 주역이기도 한 김 총장은 이전 예산 전문가보다는 대형 국제대회 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광주 U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과정에서 쌓은 전 세계 스포츠계 거물과의 탄탄한 인맥도 김 총장의 강점이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